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9월 25일)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가을 고운사서 마음방생을…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오랜만에 길에 올랐다. 상월결사는 10월 28일 등운산 고운사에서 마음방생 평화순례를 개최했다. 전국 40여개 사찰 4000여 불자가 참석한 이날 순례에서 사부대중은 평화를 발원하며 고운사 법계도림과 천년숲길을 걷기 수행했다. 사진은 법계도림을 걷기 수행하고 있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참여대중들. 〈관련기사 5면〉 의성=신중일 기자

“중앙분담금 없애자”…자승 스님 ‘작심제언’

10월 31일, 제18대 중앙종회 불교광장 간담회서

“10년 안에 중앙분담금 없애고 총무원, 직할 · 직영사찰로 운영”
총무원장 권한, 감사 징계 집중
사실상 ‘본사중심제 전환’ 제안

총무원 비대… 조직 축소 필요
“향후 스님들이 종무원 맡아야”
중앙종회, 종단미래특위 구성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단은 너무 비대해졌다. 속된 말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중앙분담금을 본 · 말사가 감당할 수 없다. 10년 뒤 총무원은 직영사찰과 직할사암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조계종의 미래를 향한 이같은 작심 제언을 내놨다. 10월 31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린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불교광장 간담회서다. 화엄1~3회와 무량회, 비구니회로 구성된 불교광장은 사실상 모든 중앙종회의원이 소속된 종책모임 연합체다. 자승 스님은 불교광장 총재를 맡고 있다.

간담회에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70여 명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 등 총무원 부 · 실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이 중앙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꼽은 가장 큰 원인은 총무원과 산하단체 일반직 종무원 인건비다. 스님은 “현재 산하단체를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 종무원이 있다. 일반직 종무원은 급여가 매년 올라 10~20년이 되면 고액 연봉자가 된다”면서 “말사 주지도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이 계속 높아지면 무슨 재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승 스님은 특수종무직을 제외한 일반직 종무원 퇴직 시 빈자리에 스님들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인건비 축소와 함께 총무원에서 쌓은 업무능력을 향후 본사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스님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중앙분담금을 본사중심제에 맞게 본사가 교육 · 포교에 활용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제는 교육원과 포교원의 존재가 필요치 않다는 뜻을 밝힌 자승 스님은 “교육원과 포교원이 생긴 이래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승려가 늘어나거나 교육의 질이 높아지거나 어린이법회 활성화, 청년불자 확대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며 “지금의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임기가 끝나면 원이 아닌 부로 축소해 인원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 운영 재정을 직영사찰과 직할사암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승 스님의 발언은 총무원장이 당연직 교구장인 직할교구 소속 사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종단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의 권한 축소를 뜻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스님은 총무원장의 권한이 축소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큰 틀에서 (총무원) 다이어트를 하지만 총무원장 권한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본사로 이관하고, 총무원장은 감사와 징계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본사주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질 것을 대비해 교구종회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 이뿐만 아니라 이웃종단인 천태종과 태고종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태고종은 (종단협 의전서열) 2위였는데 5위로 밀려났다. 그걸 회복하려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인다”며 “천태종은 사찰 하나를 지으면 우리의 천년고찰보다도 더 크게 짓는다. 부산 삼광사 같은 곳은 조계종 절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단양 구인사와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면 조계종을 깔본다. 구인사는 모든 사부대중이 모이지만 조계종은 부 · 실장 몇 명이 안내하기 때문”이라며 “조계종은 그만큼 조직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가톨릭이 추진하는 2027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세계청년대회를 언급한 자승 스님은 그에 비견될 만한 한국불교의 청년대회 필요성도 역설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도 100만 명은 못 모으더라도 중학생 이상, 50세 이하까지 20만 명은 모아서 세계불교 청년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달라이라마 초청행사를 제안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중국 압력에 의해 허락한 적이 없지만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 내년 3월 임시회 전까지 계획안을 구상해보라”고 사회부장 도심 스님에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2일 제229회 정기회에서 종단 미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종회, 집행부, 교구본사가 참여하는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에는 심우 스님이 선출됐다. 특위는 종회의원 9인,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2인, 본사주지 2인, 총무원장 추천 2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제18대 중앙종회 전반기까지다.

“교회 돌봄시설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서 성명서 채택… 반대 목소리

기독교계가 교회시설을 이용해 추진하는 ‘유 · 아동 돌봄사업’에 대한 불교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11월 2일 오전 속개한 제229회 정기회에서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기독교TV인 CTS 김경철 회장을 본부장으로 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돌봄시설 추진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사업은 유 · 아동 돌봄 입법청원을 통해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종교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앙종회는 성명에서 “세금으로 선교를 획책하는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며 “저출산과 아동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돌봄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종회는 이어 “인구절벽 위기에서 기존 돌봄시설인 어린이집들이 정원 미달로 폐업하고 있고, 개신교계에서 운영하던 시설도 반납하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서 “국가의 돌봄정책은 기존 시설을 강화하고 공공보육이 곳곳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를 활용한 돌봄정책이 공공 보육시설과 같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견해를 밝힌 중앙종회는 “교회 내 돌봄시설을 국가가 허가한다면 보육을 가장한 선교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국가의 명백한 종교편향 정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며 “국회와 정부당국은 개신교계의 부당한 청원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더 내실있게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발족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기독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총재인 이철, 이순창, 권순웅, 김태영 씨 등 다수가 한국교회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채익 · 김회재 국회의원이 개최한 관련 국회토론회 역시 방송사 CTS와 CBS가 주관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회조찬기도회장, 김회재 의원은 교회 장로기도 하다.

윤호섭 기자

제2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당 정여대종사 추대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주지직무대행 산해 정오
사부대중 일동

